



30일 새벽(한국시각) 영국 코번트리의 시티 오브 코번트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예선 B조 2차전 대한민국과 스위스의 경기에서 박주영이 다이빙 헤딩슛으로 첫골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홍명보의 믿음 ... 박주영 드디어 터졌다

박주영 선제골·김보경 결승골 2-1 스위스 꺾어

1승1무 8강 진출 '성공'

한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2012 런던올림픽 조별리그 두번째 경기에서 스위스를 꺾고 8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한국은 29일(현지시간) 영국 코번트리의 시티 오브 코번트리 경기장에서 열린 스위스와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2-1로 이겼다. 후반 12분 박주영(아스널)이 헤딩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했고 1-1로 맞선 후반 19분 김보경(세레소아사카)이 왼발 결승골을 터뜨려 한국에 승점 3점을 안겼다.

멕시코와의 1차전에서 득점 없이 비겼던 한국은 이날 고대하던 첫 승전고를 울리며 1승1무(승점 4)를 기록, 가봉을 꺾은 멕시코(1승1무, 승점 4)에 골득실에서 밀린 조 2위가 됐다.

온몸을 던져 따낸 첫 승리였다. 한국은 멕시코와의 1차전과 같이 박주영을 최전방 공격수에 배치하고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을 처진 스트라이커, 김보경과 남태희(레키아)를 좌우 날개로 세웠다.

기성용(셀틱)과 박주영(부산)가 중원 조율을 맡은 가운데 포백수비진은 왼쪽부터 윤석영(전남), 김영권(광주우 헝가), 황석호(히로시마 산프레체), 김창수(부산)가 섰고 골문은 정성룡(수원)이 지켰다.

전반 시작부터 분위기는 험악했다. 기성용이 상대 공격수 팔꿈치에 얼굴을 맞고 쓰러져 잠시 실려나가는 등 불안한 출발을 한 한국은 전반 8분 박주영이 남태희의 패스를 받아 시도한 오른발 슈팅을 시작으로 조금씩 공격 기회를 엿봤다.

득점 없이 전반을 마친 한국은 후반 4분 기성용의 버락같은 중거리슈팅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후반 12분 박주영의 '머리'에

서 선제골이 터져나왔다.

남태희가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수 사이로 크로스를 올리자 정면에 있던 박주영이 정확한 다이빙 헤딩슈팅으로 연결, 첫 골을 신고했다.

선제골의 기쁨은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불과 3분 뒤인 후반 15분 스위스의 역습 상황에서 이노센 에메가라에게 헤딩 동점골을 허용했다.

그 직후에도 파즈팀 카사넬의 중거리 슈팅으로 가슴을 쓸어내린 한국은 더는 두고 보지 않았다. 후반 19분 구자철이 왼편에서 올린 크로스가 상대 수비를 맞고 흘러나오자 김보경이 놓치지 않고 그림같은 왼발 발리슛을 터뜨렸다. 김보경의 발을 떠난 공은 상대 골키퍼가 손 쓸 새도 없이 스위스 골 그물을 흔들며 결승골이 됐다.

1점 뒤져 다급하게 된 스위스는 남은 시간 만회골을 뽑아내려고 거센 공세를 펼쳤지만



한국은 다시 잡은 리드를 놓치지 않았다. 침착하게 스위스의 공격을 막아낸 한국은 2-1로 짜릿한 승리를 지켰다. /연합뉴스

비겨도 8강 ... 가봉 앞보단 큰 코 다친다

지면 다득점에 밀릴수도

2012 런던올림픽에서 사상 첫 메달 획득에 도전하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비기만해도 8강에 진출하는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비기만해도 된다는 여유로움이 자칫 경기력에 독이 될 수도 있어서다.

스위스(1무1패·승점1·골득실-1)를 꺾은 한국은 1승1무(승점4·골득실+1)를 기록, 이날 가봉(1무1패·승점1·골득실-2)을 2-0으로 몰리친 멕시코(1승1무·승점4·골득실+2)에 이어 B조 2위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3위 스위스와 승점차를 3점으로 벌인 한국은 한국시간으로 8월2일 오전 1시 런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가봉과의 3차전에서 비기만해도 최소 조 2위를 확보해 8강에 오른다. 하지만 태극전사들은 두 경기 연속 무

패(1승1무)의 기쁨에 취해있을 수만은 없다.

만약 조별리그 3차전에서 멕시코가 스위스를 꺾고, 한국이 가봉에 2점차 이상으로 패한다면 다득점에 밀려 8강 진출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홍명보 감독은 이날 스위스를 꺾은 뒤 "가봉과 비기면 8강에 갈 수 있다고 하지만 비긴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며 "기뻐하기엔 아직 중요한 경기들이 남아있다"고 냉정함을 유지했다.

홍 감독은 스위스전에서 더 많은 득점이 나오지 않은 점을 아쉬워했다. 경주의 수를 따져야 할 때 다득점은 큰 이득을 줄 수 있어서다.

결국 홍 감독은 가봉과의 최종전을 앞두고 선수들의 분위기를 다잡아 무승부가 아닌 화끈한 승리로 기분 좋게 조별리그를 마감하고 올림픽 메달의 첫 관망이 됐을 수 있다는 의욕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황당한 패배 조준호 금보다 빛난 동메달

유도 66g급, 판정반복·인대부상 딛고 쾌거

오른쪽 팔꿈치 인대가 끊어진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조준호(24·한국마사회)의 '악바리 정신'이 동메달의 원동력이 됐다.

29일 오후(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엑셀 런던 사우스아레나 의역 경기장에서 열린 조준호의 판정을 놓고 사유와 환호성이 교차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조준호는 남자 유도 66kg급 8강전에서 일본의 에비누마 마사시(랭킹 4위)와 연장 접전 끝에 판정패를 당했다.

하지만 패배의 과정이 황당했다. 심판은 연장전이 끝나고 난 뒤 심판 전원일치로 조준호의 승리를 선언했지만 심판위원장이 개입하면서 비디오 판독을 통해 예초 판정을 반복하고 에비누마의 판정승으로 결과를 바꿨다.

정훈 남자 대표팀 감독은 "역대 올림픽은 물론 국제유도연맹(IJF) 창립 이후에도 심판이 판정한 기술의 종류가 바뀐 적은 있어도 승부 자체가 바뀐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격분했다.

전날 남자 수영 400m에서 은메달을 따낸 박태환도 예선에서 실격을 당했다가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터라 대한유도회도 즉각 세계연맹에 항의했지만 판정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판정이 뒤바뀐 상황보다 더 심각한 악재가 조준호를 덮쳤다.

에비누마와의 8강전에서 업어치기를 하다 오른쪽 팔꿈치가 꺾이면서 인대를 다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조준호는 대절 부위를 핑퐁 동여매고 패자부활전부터 나섰다.

조준호는 "팔꿈치가 정상이 아니라서 제대로 공격을 할 수 없었다"며 "지금도 거의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준호는 반드시 메달을 목에 걸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패자부활전과 동메달 결정전까지 모두 이기는 투혼을 발휘하며 동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조준호는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치른 대표선발전에서 '백전노장' 최민호(32·한국마사회)에게 두 차례나 졌다. 하지만 세계랭킹이 높은 올림픽 시드 배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대한유도회의 결정에 따라 런던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내심 최민호에게 빛을 쬐고 싶었던 조준호는 금메달을 향해 노력했지만 '판정 반복'과 '팔꿈치 인대 부상'이라는 두 가지 악재 속에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조준호는 "민호 형에게 기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기대에 못 미쳐 민호 형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 생애 처음 나선 올림픽에서 '판정 반복'에 '팔꿈치 부상'까지 겹친 조준호는 끝내 동메달을 목에 걸면서 2016년 브라질 대회 우승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금메달을 돌려줘" 남자 유도 66kg급 조준호(한국마사회)가 30일 새벽(한국시각) 런던의 엑셀 런던 노스 아레나에서 열린 동메달 결정전에서 스페인의 수고이 우리아르테에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둔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수영전문지 "오심이 박태환 발목 잡았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수영전문 월간지 '스위밍월드' 온라인판은 런던올림픽 수영에서 발생한 희대의 판정반복 사건이 박태환의 결승 레이스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위밍월드는 30일 홈페이지에 올린 객원 칼럼을 통해 박태환이 잘못된 행정의 희생양이 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칼럼을 쓴 존 크레이그는 아주 세심하게 컨디션을 조절해야 할 올림픽 수영 선수가 몇 시간 동안의 혼란 상황을 겪으면 경기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심이 박태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실제 판정을 받은 뒤 결선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태극전사 경기 일정

- ◇31일(한국시각)
 - ▲17시42분 배드민턴 혼합 복식 예선 C 조 대한민국(이용대·하정은) vs 인도
 - ▲18시05분 유도 남자 -81kg급 김재범
 - ▲19시15분 남자 핸드볼 예선 B조 대한민국 vs 헝가리
 - ▲20시00분 요트 남자 RS : X 윈드서핑 이태훈
 - ▲21시20분 펜싱 남자 개인 플뢰레 32강 최병철
- ◇1일(한국시각)
 - ▲24시00분 여자 하키 예선 A조 대한민국 vs 영국
 - ▲02시30분 배드민턴 남자 복식 대한민국(이용대·정재성) vs 말레이시아
 - ▲17시30분 여자 핸드볼 예선 B조 대한민국 vs 노르웨이
 - ▲18시56분 수영 여자 200m 평영 예선 정다래
 - ▲20시30분 유도 여자 69kg급 문유라

광주일보 창사60주년 기념 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밀레 '한국명산 16좌 원정대' 모집

▶참가신청: 광주/전라지역 밀레 매장에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밀레 매장 혹은 www.millet.co.kr)

▶참가특전: 참여하신 모든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네번째 산행 8월 24일(금) / 민주지산

*일정 및 산행루트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주)밀레 마케팅본부 (02-3153-3143, 4)

추천 | MILLET MOUNTAIN BY EXPERIENCE | 주관 | Mtour

후원 | 광주일보사